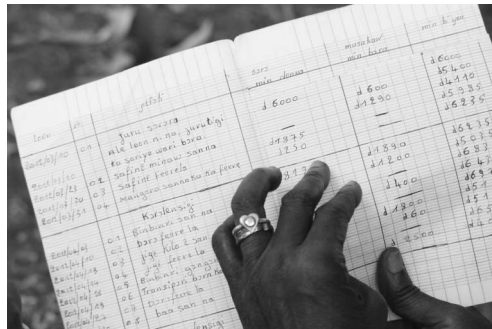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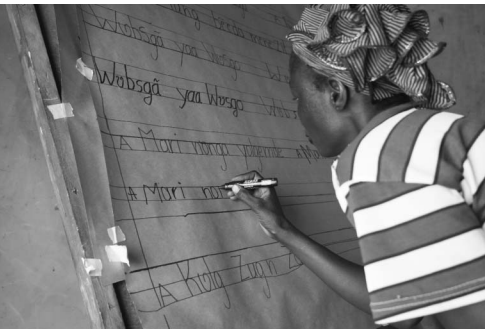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4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4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인 김기석

목 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1
II.	활동보고	2
	1. '갯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사업	2
	가) 부르키나 파소 현지 파트너기관 업무역량강화 연수.....	2
	나) 창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	4
	다) 부르키나 파소 사업 책임자 광명시 평생 학습원 방문.....	6
	라) EWB GAPA 사업지 방문.....	8
	마) APENF 총회 참석	11
	2.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14
	3.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실행.....	16
	4. 파키스탄 학교 교육 지원	19
	5.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교원연수.....	23
III.	EWB 소식	25
	1.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	25
	2. GSSD 2014 EXPO 참석.....	27
	3. 김기석 대표 라오스 대학역량 강화 사업 컨설팅 진행	29
	4. 부르키나 파소 간사 파견	30
IV.	2014 년 정산 세입 제출 보고	31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33
VI.	2014 년 후원자 명단.....	34

I.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4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UN이 정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시했고,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개발계획에 부응할 수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여덟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기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3년 장기지원 사업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세종문화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광명시와 한국연구재단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사업, 세네갈 교육사업, 에티오피아 교육사업 타당성 조사,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교사 연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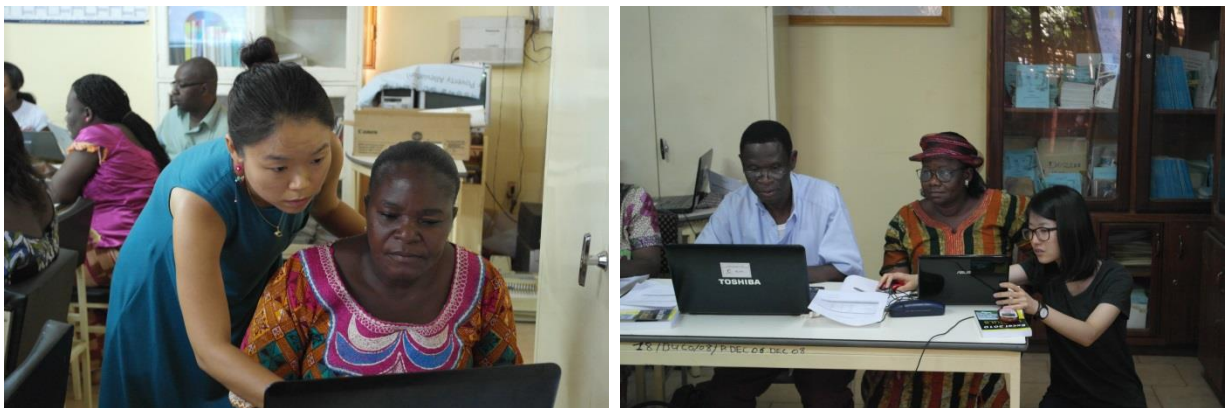
II. 활동보고

1. '갯아(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사업

가) 부르키나 파소 현지 파트너 업무역량강화 연수

협력사업팀은 4월과 7월 2회에 걸쳐 부르키나 파소 협력 기관인 비형식교육 진흥협회(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Non-Formal Education; APENF) 지도자들과 마을단위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관리자 업무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다. 그 소액대출금을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노력하였으나 마을지역마다 제출하는 소액대출 보고서의 양식이 조금씩 달라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보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정확한 정보 입력을 돕고자 하였다. 기본적인 엑셀 프로그램의 기능과 사용법을 익히는 기본과정과 업무에서 사용되는 실제 보고서를 반영하여 직접 정보를 함께 입력하고 응용하는 법을 익히는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연수를 진행하였다.



업무역량강화 워크샵 기본과정 진행

4월에 진행된 기초과정 교육은 2일에 걸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5명의 지도자 및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엑셀의 각 메뉴와 탭의 기능을 배우고 행과 열의 개념 및 계산식 입력과 편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강사의 설명과 예제를 통한 실습을 병행하며 직접 주소록과 가계부 등 간단한 시트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 접하는 개념과 익숙하지 않은 기능들이 많아 보조교사들이 진행을 도와야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하지만 새롭고 간편한 기능에 참가자들은 매우 신나 하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둘째 날에는 복습 겸 이해 수준 확인을 위한 연습문제를 제공하였고 기초 응용 기능을 익히고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많은 참가자들이 교육 시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교육장에 남아 배운

2 (사)국경없는교육가회

내용을 계속 연습하였다. 교육 종료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프로그램 만족도 77%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가장 많은 요청사항으로 이틀 간의 연수가 충분치 않아 지속적인 추가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파워포인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업무역량강화 워크샵 심화과정 진행



보조교사로 활동한 이상수 간사



소액대출 관리를 위한 엑셀 프로그램 연수

7월에 열린 심화교육과정에는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교육과정까지 추가하였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구성과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을 간략히 설명하고 직접 실습하면서 경험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단순히 워드프로그램만을 이용해 문서를 제작하고 공유, 발표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 그림과 영상, 표 등을 추가하고 도형과 차트를 입력하는 법, 그리고 슬라이드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추가 구성을 배워가며 참가자들의 재미를 높였다. 직접 본인의 사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찍어 슬라이드를 만들고 많은 참가자들이 슬라이드의 박수소리, 타자기소리 등과 같은 사운드를 입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였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가자들 모두가 열정적으로 연수에 참여했고 보조 진행강사들이 옆에 일일이 붙어, 쳐지는 참가자 없이 챙겨가며 진행하였다. 1차 교육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종료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배운 내용을 다시 연습하면서 계속 질문하며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튿날 열린 엑셀 심화교육과정은 4월에 진행된 기초과정의 복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소액대출 관리시트에 정확한 데이터와 수식을 입력하고 동일한 값을 도출해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시트를 이용해 어떻게 필요한 시기에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되었던 1차 교육과 파워포인트 교육 때와는 사뭇 다르게 참가자 모두가 진지한 태도로 엑셀의 심화된 기능을 익히기에 몰두했다. 교육을 모두 종료하고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차 심화교육과정에 전체적인 만족도 84.5%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 다소 어려웠지만 즐겁고 유익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기본, 심화교육과정에 모두 참여한 모니크(Monique) 씨는 업무에 대한 능력, 특히 한 번 배워보고 싶었던 파워포인트에 대한 지식이 더욱 발전되었다며 기뻐하였으며, 오스만(Osmane) 씨는 이메일 발송과 같은 인터넷 기능 교육도 연수 내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의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나) 창립 기념 학술대회 개최

- 행사명: <일가 복민운동의 재창조: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빈곤퇴치'>
- 일시: 2014년 5월 23일
-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
- 주최: (재)일가재단,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주관
- 주제: 글로벌 빈곤퇴치



국제회의 발표자 기념사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일가 김용기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세계화를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빈곤퇴치 사업의 경과와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 하에, (재)일가재단에서 주최하고 국경없는 교육가회에서 주관한 <일가 복민운동의 재창조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빈곤퇴치'>(Reinventing Ilga's Bokmin Movement 'poverty Reduction in Asia&Africa')가 2014년 5월 23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총 4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세션은 일가재단 운영위원장인 오명도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EWB 김기석 대표의 개회사와 일가재단 손봉호 이사장의 환영사,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 김범일 교장의 축사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은 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굿파머스의 장경국 회장이 사회로 필리핀 가나안농군학교 이관수 교장과 프놈펜국제대학교의 노광래 교수가 각각 필리핀과 캄보디아에서의 빈곤퇴치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다비육종의 이일주 부장이 한국 양돈 전문가 양성과정을 베트남으로 보급한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 뒤 토론에서는 연세대의 김왕배 교수와 지구촌나눔운동의 조현주 사무총장이 발표의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세션은 아프리카의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EWB 이사인 한양대의 이향규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APENF의 사무총장인 제르멘 우에드라고(Germaine Ouedraogo)가 '부르키나 파소의 마을에 울린 가나안 개척'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KOA-AFRICA의 박상영 대표가 케냐에서의 개발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EWB의 박수정 팀장이 EWB의 아프리카 빈곤퇴치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박환보 박사와 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의 정일병 교수가 발표 내용을 함께 나누었다.

마지막 세션은 '일가 복민운동의 재창조'라는 주제 아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일가재단 운영위원인 노정혜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고베대학교의 오가와 케이치(Ogawa Keiichi) 교수가 글로벌 관점에서 본 일가 복민운동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김기석 대표가 일가재단과 EWB의 연대 사업인 '일가 가나안 회관(ICC) 2014'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르키나 파소에 일가 가나안 회관(ICC)을 건립하여 자력으로 빈곤퇴치를 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절대빈곤을 막는 농군을 양성하겠다는 일가사상을 나라 밖에서 실천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EWB는 부르키나 파소의 협력 단체인 APENF와 협력하여 신축중인 문맹퇴치교육연수원(Centre de Formation) 내에 일가 가나안 회관의 건립을 진행할 것이다.

이후 EWB 7년 동안의 활동 영상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 백순근 원장 초청 기념 만찬 자리에서 다같이 빈곤퇴치와 국제협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국제회의를 통해 글로벌 빈곤퇴치 사업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며,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역량을 크게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부르키나 파소 사업 책임자 광명시 평생 학습원 방문

갯아(GAPA)사업 협력기관인 비형식교육진흥협회(APENF)의 제르멘(Germaine Oeudraogo)사무총장과 요나바(Yonaba Abdoulaye)코디네이터는 5월 23일 일가재단과 EWB 공동주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14년 5월 26일, EWB 사무국은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방문하여 추진사업 경과보고회에 참석하였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Gwangmyeong builds a beautiful learning community where everyone learns and shares a social life without isolation through learning." 라는 기치 아래, 학습 그 자체가 생활(Learning is life)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광명시가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서 거듭나게 하겠다는 목적 하에 건립되었다. 현재 제 3세계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광명시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제 3세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빈곤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아시아 동티모르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평생학습원 3층 회의실에서 이종화 네트워크팀장의 소개 브리핑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EWB 협력사업부의 박수정 팀장과 경영기획부 이상수 간사, 부르키나 파소 기초문해교육부 공무원이자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협력 협동과정에 있는 서지 킬렘(Serge Kyelem)도 함께하였다. 광명시에서는 평생학습원 김용연 광명시 부시장과 평생학습권역실무위원회가 참석하였으며, 통역으로 동국대학교 손윤락 교수가 함께하였다.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은 2013년부터 부르키나파소를 대상으로 MOU 체결 및 교사양성소 건립, 학습 기자재 구입 지원, 적합한 양돈사업 추진 및 소액대출을 위한 엑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4년에는 지도자 역량강화, 마을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김용연 부시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 중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이 종래에 발전을 위한 큰 토양이 되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뒤 제르멘 사무총장의 현장 실무 책임자 추진 사업 보고가 있었다. APENF의 목적은 비공식교육의 지위를 강화하고 자금 지원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서 EWB 및 광명시와의 만남으로 인해 5개의 마을 지역에서 1000여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3월, 광명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부르키나 파소 장관과 총리를 만나서 평생교육증진 MOU 체결을 하며 훈련센터 현판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훈련센터 건축의 초석을 놓는 장면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했다.

또한 광명시의 지원으로 교육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행정 직원들에게 컴퓨터 연수를 시켜서 엑셀 프로그램을 가르쳤다. 덕분에 훈련 숙련도가 높아지고 능력 불균형이 해소되었다고 전했다.



광명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사업 추진상황보고회에 참석한 EWB와 APENF팀

지금은 5개 마을 지역 문해센터(CPAF)를 개보수했으며 환경을 감안한 교육장 환경 개선, 설비 증진을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를 85% 이상 증진을 목표로 한다.



사업경과 발표 중인 제르멘 APENF 사무국장과 박수정 EWB 팀장

보고회를 마친 후 양기대 광명시 시장과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양기대 시장은 부르키나 파소와의 소중한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으며, 대한민국의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경험을 부르키나 파소에 전하여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비쳤다.

이어진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평생학습원의 운영구조 및 커리큘럼에 대한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곧 부르키나 파소 각 마을 지역의 문해센터 및 사바지역에 설립될 비형식 교육센터가 평생학습원을 롤모델로 삼아 자립운영능력을 갖추고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 하여 배워가고 싶다고 전했다.

라) EWB GAPA 사업지 방문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14년 7월 7일부터 22일까지 13박 15일간 GAPA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소액대출, 기술교육, 문해교육 등의 사업 점검 및 파트너와의 논의, 공동협의회 참석을 위해 상반기 모니터링 방문을 하였다.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 이상수 간사가 출국하였으며, 교육 전문가로서 경성대 김희복 교수가 함께 동행하였고, 현지에서 근무중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이다영 간사와 협력기관인 비형식교육증진회(APENF)의 코디네이터인 요나바(Yonaba)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 방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7월 9일에는 사바(Saaba)지역에 위치한 부세(Bousse) 마을을 방문했다. 기술교육으로 땅콩과자 만드는 법을 전수받아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의 수혜자 중 한 분인 크리스틴 우에드라오고(Christine Ouedraogo) 씨는 비누, 양봉, 목축 등의 기술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땅콩 과자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소액대출을 통해 다양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이 마을에서는 남성들의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피피라는 마을 남성은 인터뷰에서 본인의 어머니와 아내가 수혜자가 되면서 효과를 본인도 받았다고 언급하며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도 목축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고 하였다. 인터뷰 이후 마을 오퍼레이터가 초청한 연극 공연을 다 같이 관람하였다. 여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남편과 방해하는 남편을 대조함으로써 재미와 의의를 동시에 전달하는 연극이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현지 부족어로 진행되는 연극을 관람했다. 이후 GAP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액대출을 통해 양과 염소들의 사육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문해교육센터(CPAF) 건축 또한 튼튼한 기초공사 하에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다음 날에는 사바(Saaba) 마을을 방문하였다. 다양한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으며, 교육장에서 이미 한데 모여서 방문단을 환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귀여운 어린 친구들은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방문에 신이 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반갑고 신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현지 제조법으로 만든 전통 맥주 시음을 권했다. 진하고 시큼한 맛의 차 같은 느낌이 났다. 수혜자인 카보레(Kabore) 씨는 기술교육 및 소액대출을 통해 돼지 사육을 하고 있는데, 돼지가 계속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축사를 여러 개 건축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다 같이 키우게 되었기 때문에, 돼지 사육에 큰 곤란을 겪고 있었다. 방문단은 수혜자 중 한 명의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소액대출을 통해 팔려고 저장해둔 물건이나 기술교육을 통해 직접 제작한 물건 등을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수혜자 면담 진행



여성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연극 상연

7월 11일에는 와가두구에서 3시간 가량 떨어져 있는 레오(Leo) 지역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에는 워루(Worou)마을을 방문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소액대출로 양 목축과 비누 제조법 등을 배워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현지 주민들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기술 교육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고, 특히 장판 제작 기술도 배운 덕에 땅에서 자지 않아도 된다고 큰 감사를 표시했다. 이후 현지 사업 관리자인 디알로(Diallo)씨와 연극 활동을 하는 스텝, 문해 교육 교사 3명과 함께 동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해 교육 이후 여성들 스스로의 의식과 삶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으며 처음에는 교사가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점차 생각하는 법을 배워 서로간의 소통이 매우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연극을 통해서도 문해교육의 장점이나 에이즈, 조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문해교육을 받은 수혜자들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며 연극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수혜자들은 모두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에 만족하였으며, 돈을 벌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여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마을에 남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해교육센터 건립 모니터링



마을 어린이들과 이다영 간사



마을 방문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EWB와 APENF

다음날인 7월 12일에 일행은 완(Wan) 마을을 방문했다.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가장 활기찬 곳이었으며, 학교 건물과 기술교육용 건물이 다른 마을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었다. 또한 완 지역 사업 담당 기관의 기증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공공의 발이 있었으며 이것으로 마을 전체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마을의 원로이신 베농(Benon)씨는 인터뷰를 통해 바라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격스러우며 오랫동안 함께 인연을 지속하고 싶다며 '가족'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현지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깊은 인연을 지속하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방문단과 현지 주민들 모두 진정 그러한 관계가 되길 소망했다. 왕가라(Wangara)씨는 인터뷰를 통해 문해교육과 기술교육이 마을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음을 언급하면서, 본인은 문해교육 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모두들 교육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단지 남성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이로 인해 수혜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 협조를 위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공통적으로 문해교육과 기술교육,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본인들의 삶에 가져다 준 큰 혜택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 창출 및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난 것에 대해 기뻐했으며, 프랑스어 교육이나 목축, 사육 기술 등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교육에의 열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아직 도구나 시설 지원이 미흡하여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하였다.

7월 16일과 17일에는 GAPA 사업 관련 모든 참여기관, 파트너들이 모이는 상반기 공동협의회가 진행되었다. 마을 관리자들과 APENF 담당 직원들이 다같이 참석하여 문해교육, 기술교육의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사업과 보고 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에 대한 여러 요구 사항 및 소액대출 관리에 대해 보고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마을을 대표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방침을 전달받는 시간이 되었다.

남은 일정 동안 일행들은 현지 업무 및 중간 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7월 22일 출장 마무리를 하며 출국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르키나 파소에서 추진중인 사업 진행 상황과 우선 지원 사항 및 현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무엇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공동협의회 및 현지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의 업무와 사업

10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진행 방향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었다. 현지 관리자들과의 대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참석함으로써 실제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확실한 사업 진행 방향과 비전을 확보한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마) APENF 총회 참석

2014년 11월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에서는 비형식교육증진회 (이하 APENF) 정기총회가 있었다. EWB 부르키나 파소 지부 이다영 간사는 APENF 파트너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현지 기초문해교육부(MENA) 관계자들과 APENF의 재정 지원 단체 대표들, 부르키나 파소 각 지방의 문해교육 파트너 단체 관계자들까지 총 30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부르키나 파소 방송국인 RTB에서도 인터뷰 진행 및 행사 장면을 담기 위해 발걸음을 하였다.

APENF 정기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연례 행사이며 APENF의 재정파트너와 사업의 직접실행 파트너들이 모두 모여 사업 진행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토론과 제안, 방향제시를 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부르키나 파소, 비형식교육진흥협회(APENF) 정기총회 개최

비형식 교육은 초등교육에 진학하지 못한 여성을 비롯해 남녀노소에게 문해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가 아닌 문해교육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부르키나 파소에는 각 지방언어가 60가지가 넘는 국가적 특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이 있어, 공교육이 잘 정착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대안 교육으로 비형식 교육이 발달해있다. EWB도 부르키나 파소의 비형식 교육 분야에서 극빈여성층을 위한 가파(GAPA ;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PENF를 통해 4개 지방에 5개 센터를 개설하여 현지언어 교육과 기술교육, 소액대출 및 경제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14일 행사의 개막에서는 아나톨(NIAMÉOGO Anatole) 회장의 2012-2014 APENF 행적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이에 이어 EWB 이다영 간사가 김기석 대표를 대신하여 축사를 불어로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김기석 대표는 축사에서 2007년 APENF와의 첫만남에서부터 시작된 EWB와 APENF의 동행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부르키나 파소 기사 훈장 수여, 지난 9월 유네스코(UNESCO) 세종문해상 수상까지의 여정과 수고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전하였다. 특히 세네갈 교사역량 강화사업 관계자들과 부르키나 파소 APENF 지도자들의 교차방문을 지원할 것과, 재정지원 마지막 해인 2015년을 기점으로 자력갱생할 APENF의 미래에 함께할 뜻을 내비쳤다.

특히, APEN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르키나 파소 및 서아프리카에 대해 한국에서 더 많이 알게 되었으며 부르키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김 대표의 축사에 청중은 박수를 돌렸다. 김 대표는 또한 '한국도 했으니, 부르키나 파소도 할 수 있다'고 외친 현지 기초문해교육부의 콤바 볼리(Boly) 장관의 선언을 인용하여 파트너들에게 격려를 하였으며, 부르키나 파소 프로젝트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전하였다. 청중들은 박수를 돌렸고, APENF 회장 및 사무국장이 덧붙인 EWB-APENF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에게 EWB의 역할을 더욱 끈고히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EWB 대표로 축사를 전하는 이다영 간사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수상 기념 행사 진행

이후 행사 순서로는 파트너십 간의 사업 발표와 재정발표, 문제점 및 질의 응답, 대안 제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어지는 순서에도 참석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석하였으며, 의견 공유를 주저하지 않고 위치나 조건에 관계 없이 비형식 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였다.

주제는 교육부 비형식 교육 관련부서와의 파트너십, APENF 단위 파트너십의 행정처리 문제, 그리고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필드관리자들의 눈에서 본 파트너십 등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행사가 예상시간보다 길어진 점이 있지만 APENF는 여러 방면에서 보안을 요구 받았고 각 단위사업 집행자의 눈으로 비형식 교육의 파트너십을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로서 작용하였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특별히 얼마 전에 수상한 유네스코 세종 문해상을 모든 파트너 앞에서 소개하였다. APENF 회장은 방글라데시 다카의 행사장에 EWB와 부르키나 파소 기초교육부 부장관이

12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참석하여 대신 수상한 당일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상패와 메달, 상금 수여에 대해 알리면서 APENF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뛰어준 모든 파트너들에게 영광을 돌렸다.

APENF의 아나톨 회장은 행사장에서 '젊은이들 때문에 회장자리가 어렵다'며 농담을 던졌다. 그만큼 비형식 교육의 젊은 지도자들이 거스를 것 없이 당당하게 토론에 임하였음을 시사해주는 발언이었다. 무엇보다 어떤 말을 듣던지 단체의 발전을 위한 쓴 소리로 듣는 행사장 내 모든 이들의 마인드에 행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앞으로의 APENF의 발전과, 그들과의 협력 행보 역시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

2.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 사업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UNDP의 재정지원을 받아 2012년부터 3년간 아프리카교육개발협회(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ADEA)와 함께 3 개국 대한 교육부 정책 수행 역량에 대한 전문가동료평가(Peer Review)를 하고 있다. 콩고공화국과 부르키나 파소가 본 사업에 참여하였다. 아프리카 교육리더십 역량강화사업은 참가국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제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제전문가의 안목으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만민교육(Education For All; EFA)과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교육 개혁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고 집행하며, 자국 교육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7월20일부터 8월2일까지, 콩고 브라자빌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콩고의 교육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지 전문가 팀의 자체 평가내용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이번 조사를 위해 세네갈, 부르키나 파소, 말리, 기니 등 다양한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전문가들이 모여 팀이 구성되었다. 한국을 대표해 국제 교육 전문가로서 허 형 중앙대 명예교수(전 대학원장)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허 교수는 콩고 교육부를 두 번 방문하여 국가 내부의 자기평가 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8군데의 유, 초등, 중등교사 훈련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국립 교육연구소의 지도자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였다. 특히 만민교육과 새천년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초등교사 양성 노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한국 교육전문가로 콩고 브라자빌을 방문한 허형 중앙대 명예교수

부르키나 파소에서는 기초문해교육부 전 장관인 콤바 볼리의 전폭적인 협조 하에 국내교육전문가 팀의 자체평가가 진행되었다. 7월에는 평가를 위한 국제전문가 팀을 구성하고 국내팀과 국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부르키나 파소의 교육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제안점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 전문가로는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이 참여하였다. 타 국가에 비해 형식교육보다 비형식교육의 비율이 높고 범위가 넓은 부르키나 파소의 특성 상, 비형식 교육 부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었다. 비형식교육 내 직업기술훈련과 교육커리큘럼의 연관성,

교사양성훈련 등의 부분에서 많은 도전과제들을 발견했다.

12월 10일부터 3일간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에서 다시 한번 워크숍이 열렸다. 본 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전문가 팀을 통해 발견된 많은 도전과제들과 제안사항들을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 콩고와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 동료평가 보고서(National Peer-Review Report)의 초안 작성이 완료되어 2015년 상반기 내 최종안이 발간될 예정이다.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에서 열린 워크숍 참가

3. 세네갈 과학수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실행

김기석 대표와 박수정 팀장은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세네갈 교원과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습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안전행정부의 비영리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된다. 세네갈 다카르 게자와이에 위치한 GSTS BAAL 이라는 학교 내에 ICT 기자재를 후원하여 컴퓨터실을 마련하고, 현지 교원들이 무상교육자료(Open Education Resources;OER)을 활용하도록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며, 학생들에게는 실제 대학의 과학실험실을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과학수학과목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핵심 사업이다.

출장 일정 동안 진행된 5일간의 교원연수에서 EWB의 교육개발협력 프로젝트 소개와 한국 교원정책에 대해 발표하였고, 세네갈 교사들로부터 한국 교원 정책과 교원 양성 및 연수과정, 그리고 교육시스템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연수 진행을 위해 영국(TESSA; Teacher Education in Sub-Saharan Africa), 프랑스(Apreli@;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s Ressources Educatives Livres Africaines), 토고(RELET) 등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파트너로 함께 참가하였다. 세네갈 현지 교원 30명 이상에게 무상교육자료(OER; Open Education Resources)를 활용한 수업교안 제작 및 교수법을 교육하고 토론,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TESSA는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지역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사 교육과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전문기관으로 무상교육자료의 개발과 보급, 적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무상교육자료는 무료로 교안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가능하며, 각 국가, 문화, 과목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어 교육자료의 현지화가 가능하고 재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교육자료는 4개 국어로 되어 있고 현재 약 10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세네갈 교원역량강화연수 개회식



무상교육자료 활용안 발표 모습

워크숍 개회식과 폐회식에는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인 신종원 대사를 비롯하여 세네갈 교육부, 아프리카교육개발협회(ADEA;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Africa), 유네스코 관계자 등 다양한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2012년 부르키나 파소 와가두구에서 열린 아프리카 교육개발협회(ADEA)의 주최 “ADEA Triennale: Korea-Africa Day” 행사에서 한국의 교육개발경험에 대해 발표한 김기석 대표에게 파트너 기관인 GSTS BAAL의 교육지도자 파피(Papy)가 한국교육경험의 공유, 전수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2년간의 현지 조사를 거쳐 시작된 프로젝트로 양 기관에게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현지 국영방송 인터뷰 및 신문기사로도 보도되는 등 현지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신종원 주세네갈 대한민국대사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 중인 참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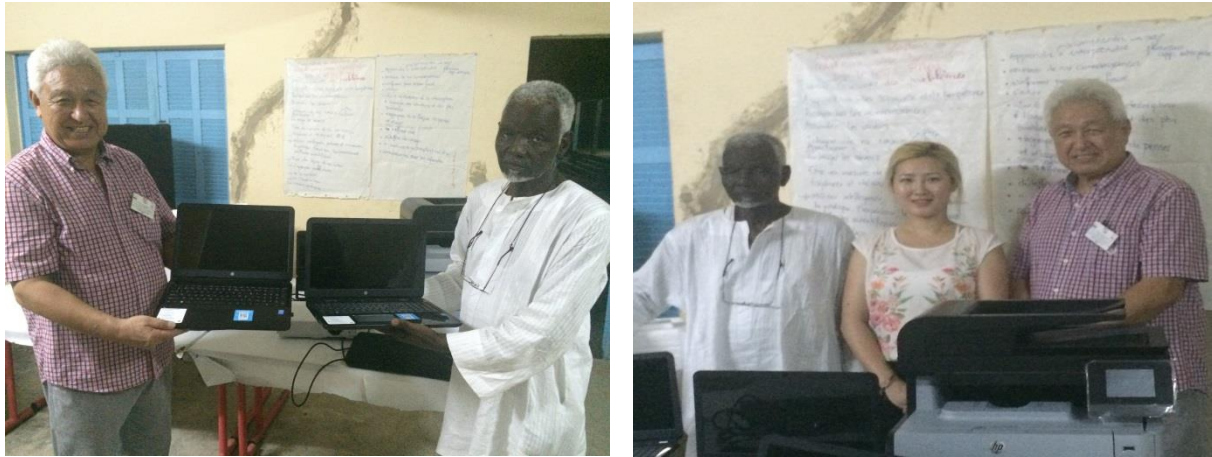


협력학교 GSTS BAAL의 전경



교원연수 수료증 전달식

워크숍이 종료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수료증 전달식이 열렸다. 수료증 전달에는 학교 경비, 음향스태프, 청소담당 직원, 어린 꼬마아이 등 모두가 함께 해 성공적인 워크숍 진행에 더 큰 기쁨을 더했다. 교사, 학생, 직원, 프로젝트 스태프 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워크숍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다. 또한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노트북, 프린터, 프로젝터, 스크린 등 ICT 기자재를 후원하였다. 2012년에 만나 세네갈에서의 조우를 약속했던 양 기관 두 대표가 다시 만나 기자재 전달식을 가졌다.



ICT 기자재 전달식을 가진 김기석 대표와 파피 지도자대표

이 외에도 젠더, 평화, 안보 이슈를 다루는 현지 기관인 아프리카 여성 연합(Femmes Africa Solidarite; FAS) 방문을 통해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 세네갈 한국대사의 초청으로 대사관을 방문해 코이카 관계자 및 교육분야 자문단과 만나 세네갈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시간을 가졌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비교적 가버넌스가 잘 형성되어 있어 안전한 세네갈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발전이 기대된다.

4. 파키스탄 학교 교육 지원

파키스탄에서 학교 교육 지원 1년을 되돌아 보며

전 파키스탄 코이카 사무소 교육 ODA 전문가
김주훈

지난 2015년 2월 7일부로 1년간의 파키스탄 코이카 사무소의 교육 ODA 전문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여러 가지 공적원조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코이카 파키스탄 사무소의 공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지난 1년간 수행한 파키스탄 학교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지원을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1. 파키스탄 공립학교 지원

저는 공적원조 사업에 관심이 많아 5년전부터 공적원조 사업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적원조관련 연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적원조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등에 참여하여 나름대로는 꽤 준비를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 도착하여 학교 현장을 보고 나서는 이러한 이론중심, 숫자중심의 연구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기석 교수님께서 출발 전에 손수건을 여러 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학교 현장을 보고서야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파키스탄 편잡지역의 공립학교인 로타스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노트가 없어 나무 판자로 만든 파피루스 노트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 의자와 책상이 없어 교실의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분필이 쓰여지지도 않는 손바닥만한 낡은 칠판을 가지고 수업하는 모습 등 차마 눈 뜨고는 보기 어려운 학교 교육 장면을 보고서 받은 충격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1960년대 초반 충청북도 미륵리(송계계곡)인 데에도 의자와 책상이 없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가 이 학교뿐 아니라 파키스탄 대부분의 공립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키스탄 학교를 돕고자 '파키스탄 학교 교육 지원 페이스북(Supporting Education in Pakistan School, <https://www.facebook.com/groups/1391161887829124>)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파키스탄 학교 교육 지원 페이스북을 통하여 모금된 지원금은 주로 파키스탄 공립학교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2.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학교 지원

우연히 이슬라마바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곳 교육 여건은 파키스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몇 개의 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는 2000여명의 어린이가 있다는데 4개의 학교에서 610여명의 어린이를 교육하고 있어 아직 1400여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개의 르네상스학교(Renaissance School), 1개의 모든이웃의학교(All Neighbor School), 1개의 마드라싸학교(Madrassah School)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파키스탄 공립학교보다 훨씬 열악하였습니다.



작은 3개의 교실에서 일부 학생만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르네상스 학교



천으로만 교실 지붕과 칸막이를 만들어 공부하며 책걸상은 물론 교과서도 없는 모든이웃의 학교



벽만 있고 지붕, 교과서, 칠판, 화이트보드도 없는 마다라싸 학교.

파키스탄 공립학교는 파키스탄 정부에서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학교는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NGO 활동으로 밖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저는 파키스탄 학교보다 아프가니스탄 학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후반기 모금액을 모두 아프가니스탄 난민촌 마을 학교에 전액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에 노트, 연필, 화이트보드, 교구, 교과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르네상스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포트폴리오 작성에 복사기가 필요하다고 하여 복사기를 제공하고, 모든이웃의학교에는 ICT 교육을 하고 싶다고 하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마다라싸학교는 건물 지붕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지붕을 엮어주었습니다. 지붕을 엮는 데에는 너무 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전체 지붕의 1/3만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독지가의 지원을 받아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교과서



교과서 전달식



지원에 감사하는 아이들

1년 동안 모금한 액수가 8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이들의 요구는 많았으나 모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에 가장 필요한 것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학교 이외에도 더 많은 학교를 만들어야 학교 근처에도 갈 기회를 갖지 못한 나머지 1400여명의 이곳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문맹이라도 면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을 떠났지만 이들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선단체를 통한 모금에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이들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는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페이스북에서 쓴 글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여 파키스탄 교육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수익금을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마을 학교 지원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페이스북을 찾아 격려하여 주시고 성금을 쾌히 지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하여도 그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마을 학교 지원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파키스탄 교육 지원 방법

파키스탄의 어려운 교육을 돕고자 하시는 분은 무통장입금(농협중앙회 301-0099-2095-71, 예금주: 국경없는교육가회)을 하시거나, CMS 등록을 통한 후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02-885-6422, 국경없는교육가회 사무국). 아울러 기탁하신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5.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교원연수

2014년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후속세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2014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교원연수를 실시했다. 7월 28일,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 라는 주제 하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하는 박환보 박사의 '국제교육개발협력이란?' 강의를 필두로 교원연수가 시작되었다. 이후 김기석 대표 '한국의 교육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의가 이어졌으며, 특별히 협력사업부 박수정 팀장이 EWB의 대외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자기소개 및 강의 내용에 대한 토론과 나눔을 거쳐, 각자 배운 내용을 토대로 국제교육개발협력에 대해 정의해보고 가장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육개발협력 교원연수에 참가한 서울초등교사들

이어 이튿날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관과 국제 동향>이라는 주제로 장지순 박사가 첫 강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2년에 부르키나 파소 현지 파견 근무를 수행했던 정혜진 간사가 <부르키나 파소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 발표했으며, 마지막으로 인천 약산초등학교의 하승천 교사가 <교원참여 협력사업 사례>라는 주제로 에티오피아 파견 근무 경험 및 교원으로서의 느낀 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강의중인 하승천 교사와 김기석 EWB 대표

마지막 날에는 서울 서원초등학교의 박애경 선생님께서 '현직 교사가 전하는 학교 적용사례'라는 제목으로, 직접 교육개발협력에 대한 수업을 초등학생들에게 진행했던 경험을 강의했다. 이후, 연수생들이 각자 조를 이루어서 강의 전반에 대한 토론과 자신이 새로 생각하게 된 국제교육개발협력에 대한 나눔 및 교육현장에 교육개발협력 분야를 적용시킬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이를 발표했다. 우수한 강의를 이끌어주신 강사분들과 진지한 연수생들의 열정에 의해 성공적으로 교원연수가 마무리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 교육을 위해 후속 모임을 결의했다.

III. EWB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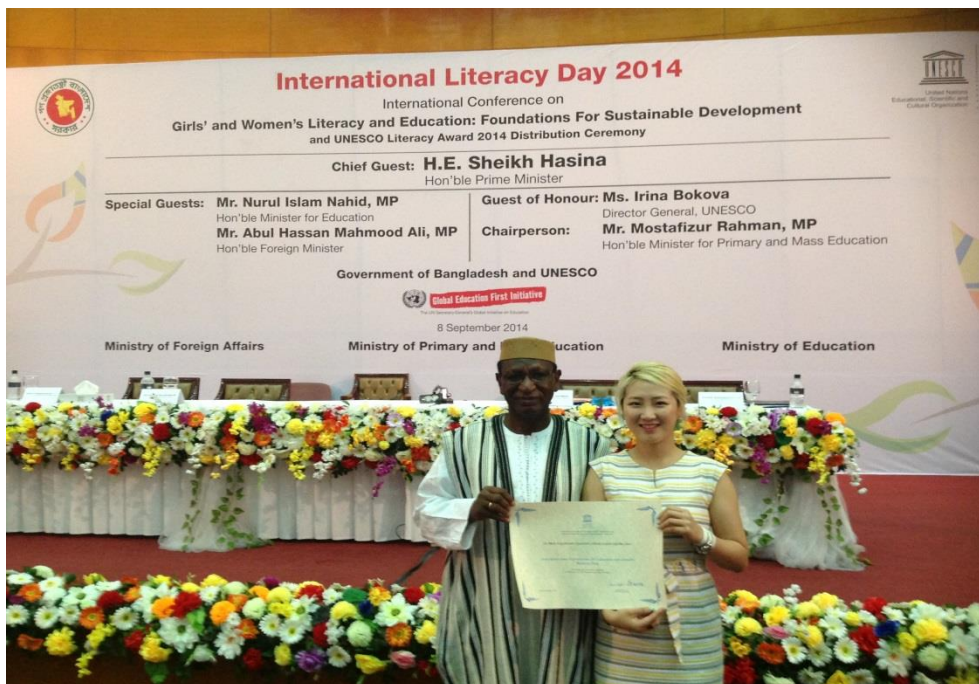
1.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수상

‘제정 25년만 최초’

국내 기관 주도 사업 2014년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

매년 9월 8일은 1965년 유네스코 선언에 의해 공포된 ‘세계 문해의 날(International Literacy Day)’로서, 유네스코는 이날을 기념해 국제사회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단체에 국제문해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9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자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제정해, 1990년부터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로는 부르키나 파소의 ‘비정규교육진흥협회’(Association for Promoting Non-Formal Education, 이하 APENF)와 에콰도르의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가 선정되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린 세계 문해의 날 행사에 참석,
세종문해상을 수상한 부르키나 파소 교육부 차관 아마두와 박수정 팀장

부르키나 파소의 비정규교육진흥협회(APENF)은 1997년 창설되어, 부르키나 파소 내의 극빈층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이다. 2009년부터 EWB와 함께 ‘극빈곤 지역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5개의 다른 지역에서 5가지 토착어로 제공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해독, 보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경기도 광명시 평

생학습원, 한국연구재단도 사업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은 사업파트너로 함께 신청하여 수상의 쾌거를 올렸으며,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거둔 성과이다. 이 GAPA사업을 통해 약 1천 8백여 명의 여성들이 빈곤 퇴치, 산림 파괴 예방과 오염 방지 교육 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APENF는 이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소감을 전달하는 아마두 교육부 차관



개회사를 발표하는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 이윤영

에콰도르의 교육부는 2011년부터 토착민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성인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토착민들의 토착언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읽기, 쓰기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글로벌) 시민 교육, 공중보건, 아동들을 위한 영양 교육 등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3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폭넓은 수혜자를 배출했다. 에콰도르의 교육부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프로젝트가 소외 계층 여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삶의 기반이 부족한 토착 원주민들의 문맹 퇴치에 기여한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다.

올해 유네스코 국제문해상 시상식은 9월 8일 방글라데시 다카 방가반두 국제컨퍼런스에서 '여성 문해와 교육에 관한 국제 콘퍼런스'를 겸해 진행되었다. 방글라데시 총리(Prime Minister) 뿐만 아니라, 외교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다양한 국가 대사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에콰도르의 교육부 장관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APENF 회장 아나톨(Anatole) 대신 아마두 아짐 카발리(Amadou Azim Karbalyee) 교육부 부장관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협력사업부 박수정 팀장도 참석하여 함께하였다.

2. GSSD 2014 EXPO 참석

2014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디씨에 위치한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에서는 5일에 걸쳐 '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2014'가 열렸다. EWB는 작년 나이로비에 이어 두 번째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남-남, 삼각협력구도의 확대(Scaling up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로 초점을 두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전 등록자만 500명 이상에 달하고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정부기관, 학계 교육기관, 비·영리 기관들이 함께 자리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및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었다. 개발위기로서의 에볼라 대응 방법, 식량안보, 민관협력 파트너십, 녹색 기술 이전, 녹색 경제와 보건 등에 대한 포럼과 워크숍 세션이 진행되었다.



엑스포에 참가한 박수정 팀장과 서울대 TEMEP 이헌준 박사생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서울대학교 TEMEP, 한양대학교 건강과 사회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IEAEC, 제주국제연수센터,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5일에 걸친 전시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개발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알릴 수 있었다. 전시뿐만 아니라, UNDP와 한국 미래창조과학부, STEPI가 함께 주최하는 워크숍 세션이 열렸다. '과학기술과 혁신 전략: 포스트 2015 개발 안건 달성에 있어서의 핵심 요인으로서의 STI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Strategy Workshop; STI as an Important Driver for Achieving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라는 테마로, 나이지리아, 네

팔,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활동가, 학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노하우를 응용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실제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지 사례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행사 셋째 날에는 한국-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협력 사업 2차 준비를 위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 사전 논의세션에서는 2012년부터 진행된 한국기관과 UNDP의 1단계 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시사가 이루어지고 2단계의 사업 수립 시 개선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토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각각의 한국기관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맡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적 특성이 반영된 전체적 사업의 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동시에 국제기구 다자기관과의 협력사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 세션에는 개도국 참여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국가별 수요를 파악하고 글로벌 이슈 현황 및 문제점과의 연계 가능성, 개도국 자체의 펀딩 가능성과 호응도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UNDP 협력 워크숍
세션 진행



엑스포 개최 기념 테이프 커팅식

UNOSSC(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의 총 책임자인 이핑 초우(Yiping Zhou)는 저녁 만찬에 함께 참석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이 다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살아 있는 예로서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며 함께 자리한 한국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한국이 한국만의 특별한 개발역사를 이용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진 개발협력 노하우를 이용해 세계 무대에서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다.

3. 김기석 대표 라오스 대학역량 강화 사업 컨설팅 진행

김기석 대표는 6 주 간 라오스 교육부 고등교육국의 초청을 받아 대학역량강화 사업 톱기로 하였다.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체재 하였고 2015년 2월에 두 주 체재할 것이다.

최근 라오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맡긴 약 3, 500 만불 규모의 공적 원조 자금을 받아 고등교육강화사업 (Strengthening Higher Education Project: SHEP, ADB Grant No. 1066-Lao)을 시행하고 있다. 고베대의 Ogawa Keiichi 교수는 대학 강사와 소장 학자 대상 연구 제안서 및 논문 작성을 돕고 있다. Souphanouvong University (SU, 르왕푸라방 시 소재), Champasack University (CU), 그리고 National University of Lao (NUoL) 등의 대학교에서 연구 제안서 및 논문 작성에 대한 조언을 주고 SU와 CU 두 대학에 영문 학술지를 창간하는 일을 도왔다.

두 교수의 도움을 받은 현지 연구자들은 아시아개발은행에 연구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며,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해당 연구 종료 후 논문을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과는 별도로, 라오스 교육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한국교육발전 경험의 공유와 나눔을 주제로 한 양국간 학술연찬 대화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2년 EWB-ADEA가 제정하여 부르키나 파소에서 개최된 '한국과 아프리카의 날(Korea-Africa Day)'을 아시아에서 다시금 개최하는 것이다. KAD(한국과 아프리카의 날, Korea-Africa Day) 당시 교육정책, 기초교육, 평생교육, 과학기술정책, 직업교육과 훈련, 고등교육, EWB의 풀뿌리 빈곤퇴치 운동,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브릿지 사업 등 여러 분야별로 아프리카 학자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다양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이를 라오스로 확장하여 아시아 대륙에서도 우리의 교육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4. 부르키나 파소 간사 파견

이다영 간사는 2014년 3월 17일 부르키나 파소로 출국하였다. 이 간사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EWB 사업 코디네이팅, 모니터링 수행 및 지역사회 개발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가파 사업 수행을 위해 출국하는
이다영 간사

IV. 2014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4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4년 수입	2014년 지출	당기수익
491,308,419	322,919,997	168,388,422

2. 2014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15,874,557	
후원금		정기후원금	43,256,300	
		부정기후원금	18,391,300	
		소계	61,647,600	
사업수입	사업수입	GAPA	80,060,827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0,805,837	
		UNDP	53,428,078	
		케냐 교원연수	2,000,000	
		세네갈 교육사업	30,005,340	
		ICC 건립기금 모금	39,900,000	
		교사연수	500,000	
		청년인턴	13,880,000	
		ILGA_EWB 국제회의	5,124,000	
		에티오피아 수요조사	6,000,000	
		소계	301,704,082	
잡수입	이자수입	이자	161,519	
	기타수입	기타	11,920,661	
	소계	12,082,180		
합계			491,308,419	

3. 2014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GAPA	84,197,470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2,692,612	
		UNDP	19,071,425	
		케냐 교원연수	8,996,461	
		세네갈 교육사업	31,893,915	
		ICC 건립기금 모금	0	15년 지출계획
		교사연수	1,369,150	
		청년인턴	24,976,358	
		ILGA_EWB 국제회의	5,427,400	
		에티오피아 수요조사	646,362	
소계			249,271,153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27,396,600	
		사무국운영비	27,088,662	
		세금	142,680	
		기타	19,020,902	
		소계	73,648,844	
합계			322,919,997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도국 교육발전을 위한 유엔 MDGs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1. 후원계좌
농협) 079-01-473722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 <http://www.ewb.or.kr> / 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2014 년 후원자 명단

- 만민교육 후원자

다비육종(윤희진), 이무헌

- 빈곤퇴치 후원자

김기석, 이현

- 질병퇴치 후원자

김진환(학지사), 서혜애, 손봉호, 손영우, Keiichi Ogawa

- 문맹퇴치

강선미, 고소향, 고희은, 구서경, 구소영, 구신영, 구영주, 김경일, 김명진,
김성수, 김성식, 김성열, 김어진, 김윤희, 김정숙, 김주립, 김주선, 김주훈,
김준엽, 김지자, 김진이, 김태석, 김태윤, 김현숙, 남영선, 류방란, 문삼은,
박근아, 박범진, 박에스더, 박태훈, 박환보, 배정현, 설유경, 신봉철, 신선미,
신정철, 안상길, 양길석, 양내인, 양병표, 양은성, 양희준, 어영기, 오은빈,
우병열, 이광수, 이기정, 이미화, 이보연, 이선정, 이승환, 이윤복, 이재열,
이재찬, 이정숙, 이종복, 이차권, 이태주, 이한별, 이향규, 이현정, 이호영,
임해미, 임후남, 장봉훈, 장용훈, 전종갑, 정미란, 정복희, 정봉근, 정운찬,
정일선, 정재환, 정진화, 조상식, 조정아, 주현일, 차승주, 최광혜, 최채지,
허병부, 홍문숙

- 만민교육 1,000 만원 이상, 빈곤퇴치 500 만원 이상, 질병퇴치 100 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 원 이상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